



LAW SCHOOL

창
○

2025 VOL. 56

04 ————— SPECIAL INTERVIEW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으로”

박균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08 ————— POWER INTERVIEW

사내변호사의 매력은 ‘내부자 시선’...
리디 법무팀장의 커리어 전환기

임한결 변호사
리디(RIDI)

34 ————— LAW FIRM TOUR

“김·장이 찾는 인재는?
신뢰·성실·팀워크 갖춘 법조인”

김·장 법률사무소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돌아와”

- 케이팝 데몬 헌터스 -
KPop Demon Hunters

SPECIAL INTERVIEW 박균택(더불어민주당)	04
POWER INTERVIEW 임한결(리디(RIDI))	08
HOT ISSUE	12
HAPPY LAWSCHOOL 이상곤(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
BOOK	17
CONTEST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18
REAL STORY 이나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추승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보람(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4
LAW FIRM TOUR 김·장 법률사무소	34
SPECIAL REPORT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플랜 사용 후기	40
LETTER FROM 한상원(공익법단체 두루)	42
OPINION 박애란(한국저작권위원회)	44
HEALTH MENTORING 이일형(법무법인(유한) 대륜)	46
BOOK TALK TALK 정지우(사단법인 오늘은)	48
LAW TOON 조만호(법무법인 지혁)	50
AKLS NEWS	52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akls.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 인터뷰 내용 등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10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홍대식
편집인 이택건
편집·진행 홍보팀(박소희, 여세린)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그리고나무(02-2268-2592)
인쇄 ㈜빅북프렌즈



본 매거진의 모든 내용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반드시 출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명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CC BY 4.0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 국회 본관 앞에서 서 있는 박균택 의원 [제공=박균택 의원실]

검사에서 국회의원으로, 2024년 정치에 첫발을 내디딘 박균택 의원.

초선이지만 그의 행보에는 단단한 무게감이 있다.

“법과 제도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만들겠다”는 다짐처럼,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에서 인권 보호, 그리고 지역 발전까지.

그의 관심은 국민 생활 구석구석을 향해 있다.

법조인으로 쌓아온 경험을 정치에 녹여내며,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초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법조인으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발전 과제가 많으므로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힘쓰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Q.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신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별

로 요구되는 학습량의 차이가 크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생들의 선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했던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총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환경법·국제법 등 3개 과목에만 응시자의 80% 이상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로스쿨에서 일부 선택과목이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이 중단되는 등 학문적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선택과목을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총점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을 충족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응시생들이 점수 부담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Q.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인지요?

A. 지난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인 10월에는 사실상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1월 무렵부터 법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 고유법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여러 법안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그 외에 의원님께서 법조인으로서 애정을 갖고 추진해 오신 주요 법안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검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 하나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피의사실 공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여론재판이 벌어지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느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피의사실을 공표·누설·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입



검찰개혁법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임하는 박균택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군택 의원

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더 소개해 보자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 수괴들이 축적한 불법재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수익이 가족과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막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기소 및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부가형인 몰수와 달리, 몰수를 별개의 독립 절차로 인정함으로써,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입니다. 지난 8월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보이스피싱과 같이 다중대상피해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향의 후속 입법 마련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식약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검사로 활동하시던 경험이 지금의 입법 활동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평검사 시절에는 형사부 사건을 맡으면서 국민 한 분 한 분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직급이 올라갈수록 검사에게 주어질 권한이 사회에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남용될 경우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권한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며, 실적이나 편의가 아니라 인권과 공정한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도 당시 느꼈던 문

제의식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인데, 결국 검사 시절의 경험이 지금 입법 활동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가 출신으로서 현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주장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회에 법조인 출신 의원이 많아 입법의 질이 높아진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정치의 사법화 같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체계·자구 심사와 같은 법률적 정합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조인 중심의 국회는 법리 논쟁



박군택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과도하게 격화되거나, 정치가 법의 틀 안에 갇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국회는 어디까지나 민의의 정당입니다.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일수록 국민의 상식과 보편적 정서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Q.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 법 제도나 시스템은 무엇인지요?

A.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피해액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올해는 8월에 작년 피해액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피해액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성을 높여서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 정책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범행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법조인들이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조인들이 특히 어떤 영역에서 더 활약해 주기를 바라시는지요?

A. AI의 발전, ESG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풍조 등이 새로운 규제의 정립과 그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필요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에서도 법조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법조인은 나라에서 자격을 관리하는 전문직입니다. 공직으로 진출하시는 분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법조인은 나라에서 자격을 관리하는 전문직입니다. 공직으로 진출하시는 분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A. 저 역시 선배 법조인으로서 치열한 학업의 시간을 지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을 큰 틀에서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고, 그때 흘렸던 땀방울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곧 앞이 열리는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하고 잘 견디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거든,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사람보다는 진실과 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따뜻한 법조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향후 계획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A. 지난 1년은 야당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에는 여당 의원으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역구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내변호사의 매력은 ‘내부자 시선’... 리디 법무팀장의 커리어 전환기

임한결
변호사

리디(RIDI)
법무팀장



Q. 현재 리디 주식회사(이하 리디)라는 기업의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리디는 어떤 회사인가요?

A. 리디는 전자책 서점으로 출발해 웹툰과 웹소설, 나아가 숏폼 드라마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여러 차례 투자 유치를 거듭해 최근에는 여섯 번째 단계인 ‘시리즈 F’ 투자까지 완료했으며, 국내 자생 콘텐츠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기업가치 1조 원을 달성한 유니콘 기업이기도 합니다.

리디는 크게 △전자책·웹툰·웹소설 플랫폼인 ‘RIDI’, △영미권 독자를 겨냥한 웹툰 플랫폼 ‘Manta’, △숏드라마 플랫폼 ‘Kant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 콘텐츠 사업으로도 보폭을 넓히며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Q. 북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로스쿨을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중국에서 유학한 시기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였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점차 개방되는 중국 시장에 발맞춰 현지 업체와 협업하거나 지사를 설립하며 활발히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경영학부에서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의 사례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한국에는 생소한 중국 법제나 공산국가 특유의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며,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제가 한국 기업들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문 변호사’라는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요.(웃음)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며,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제가 한국 기업들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문 변호사’라는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요.(웃음)

Q. 인하대 로스쿨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2주간 인턴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자문 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목표가 막연하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2학년 무렵에는 검찰을 진로로 삼아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죠.

그런 와중에 큰 기대 없이 지원했던 세종 인턴십에 합격했고, 인턴 과정을 거쳐 사전 채용까지 이어지면서 진로가 구체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로스쿨 출신 동료들(훗날 입사 동기가 된)과 선배 변호사들을 만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점이 제 커리어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세종과 케이엘파트너스에서의 경험이 지금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데 어

떤 시너지를 주고 있나요?

A. 세종과 케이엘파트너스에서는 주로 M&A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내변호사로서는 M&A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자문의 근간과도 같은 분야였습니다. M&A 실사 과정에서는 영업계약, 자산·부채, 인사·노무, 인허가, 지배구조 등 회사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M&A만으로 특정 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Generalist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더없이 적합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규모 법무팀의 사내변호사라면 폭넓은 시각을 갖춘 Generalist가 되어야 하는데, M&A와 기업 자문을 통해 얻은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리디 법무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나요?

A. 리디 법무팀의 업무는 크게 △컴플라이언스, △계약 검토, △IP 관리(불법 유통 대응 포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자체가 규제산업은 아니지만, 특성상 공정거래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독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거나 법제 개선을 건의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팀은 관련 부서와 협업해 답

변 자료를 작성하고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역시 중요한 영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이용 동의서 같은 법률 문서 검토는 물론,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어떻게 준수할지에 대한 자문까지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방대한 작품을 다루는 콘텐츠 플랫폼인 만큼, 작가들과의 계약도 주요한 업무일 것 같습니다.

A. 법무팀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콘텐츠 라이선싱 계약 검토입니다. 제가 합류했을 당시 리디는 표준계약서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폭의 수정 수요는 많지 않지만, 계약 검토는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큰 업무입니다. 특히 최근 숏드라마 플랫폼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계약이 늘어나, 이에 맞는 표준계약 서식을 새로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웹툰은 불법 복제가 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법무팀에서 맡고 있나요?

A. 맞습니다. 불법 유통 대응은 콘텐츠 플랫폼만의 특수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웹툰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합

사내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내부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펌에서는 제3의 자문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그 이상을 경험하기는 어려웠지만, 사내변호사는 사업적 판단의 이유와 배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 시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해외 불법 번역·유통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디 법무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구글·유튜브 등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활동을 통해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법무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가장 큰 애로사항과 동시에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적 관점과 법무적 관점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업 부서에서는 법무팀을 ‘사업에 제동을 거는 부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 처음 입사할 때 이런 분위기를 우려했기에, 최대한 현업팀에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법무적으로 이를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절충해서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보람은 법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초 GIC로부터 1,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성사시킨 일이나, 일본에서 숏드라마 신규 사업을 준비하며 규제 검토와 현지 법인 설립을 주도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사내 구성원들과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 다른 팀과 협업할 때는 무엇보다 소통에서 예의를 지키되, 아닌 것은 명확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례하게 ‘안 된다’고 단호히 잘라 말

하거나 상대 탓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리스크가 남은 사안이라면 분명하게 불가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팀원들과의 협업에서는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잘한 일에는 보상이, 잘 못한 일에는 그에 합당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는 저 자신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저는 늘 『논어』의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즉, “내가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구절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중잣대 없는 태도야말로 조직을 신뢰로 이끄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로펌과 비교했을 때 사내변호사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A. 사내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내부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펌에서는 제3의 자문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그 이상을 경험하기는 어려웠지만, 사내변호사는 사업적 판단의 이유와 배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펌에 있을 때는 단순히 ‘이러이러한 절차를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도로 의견만 주고 실제 실무진이 어떻게 해당

임한결 변호사

북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인하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거쳐 현재는 리디(RIDI)의 법무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업무를 수행하는지까지 follow-up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실무진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외부인 입장인 로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로펌처럼 다양한 법 분야를 폭넓게 다루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아쉬움을 주로 로펌 뉴스레터를 구독하거나 한국사내변호사회 세미나에 참석해 최신 법제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웃음)

Q. 최근 생성형 AI가 늘어나면서 저작권 쟁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 AI와 저작권에는 여러 층위의 이슈가 있지만, 콘텐츠 플랫폼 입장에서 가장 큰 쟁점은 ‘창작 과정에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AI 활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금지 규정을 만든다 해도 실제 창작 과정에서 AI가 사용됐음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사용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논의하는 편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웹소설 작가들 중에는 AI와 문답을 하며 아이디어를 얻거나 플롯을 짜는 등 창작

과정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효율이 결합된 이런 형태가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창작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Q. 앞으로 변호사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콘텐츠 업계 전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웹소설, 웹툰과 같은 원천 IP 외에도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웹소설과 웹툰은 이미 원천 IP로서 2차 사업, 특히 영상화를 통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전문성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Q. 사내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생이나 젊은 변호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A. 제 경험일 뿐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당장 특정 분야나 회사를 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로펌 등에서 다양한 자문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그 전문성을 살려 특정 분야의 사내변호사로 이직할 수도 있고, 소규모 법무팀이라면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Generalist로서 강점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issue 01



상담 시작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모습



상담부스에서 상담 중인 서강대 로스쿨 홍대식 원장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성황리 개최

지난 8월 21일(목)~22일(금) 이틀간 양재 aT센터에서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25개 로스쿨의 개별 상담부스와 현직 변호사 부스도 마련됐다. 첫날 오전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로스쿨 원장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대식 이사장의 개막 인사, 개막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한 장소에서 25개 로스쿨 교수 및 관계자들에게 입시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틀간 약 15,000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issue 02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서강대·서울시립대 로스쿨팀 특허법원장상 수상

8월 11일(월)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본·결선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회 참가자들이 실무에서 행해지는 법정 변론 방식을 경험해 보고, 그 능력을 발휘해 볼 기회를 만드는 취지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 로스쿨팀(정은석, 이동하, 노현근)과 충남대학교 로스쿨팀(유주형, 유혜림, 신동경)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로스쿨팀(장효중, 박재형, 김범수)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민, 이연지, 추유안)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특허부문 특허법원장상을 받은 서강대 로스쿨팀. [사진=이동하 원우 제공]

issue 03

제14회 전국 로스쿨 야구대회·LAW PLAY TENNIS DAY 성료

전국 로스쿨 구성원들이 함께한 ‘제14회 전국 로스쿨 야구대회’와 ‘LAW PLAY TENNIS DAY’가 8월 23일(토)~24일(일) 충북 보은군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처음으로 야구와 테니스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과 동문이 참가해 교류의 장을 넓혔다. 야구대회에서는 부산대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전남대와 연세대는 공동 3위에 올랐다. 개인상은 △MVP 부산대 김재원 △우수투수상 성균관대 김민중 △우수타자상 부산대 유명민이 수상했다. 테니스 종목에서는 남녀 단식·복식 및 혼합복식 경기가 펼쳐졌다. 경북대 티스퀘어 동아리 소속 황영민 선수가 단식과 복식 모두 제패하며 2관왕에 올랐다.



테니스대회 단체사진



야구 대회에서 MVP를 수상한 부산대 로스쿨 김재원

issue 04

서울대 로스쿨팀,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첫 우승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8월 23일(토) 연세대 광복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팀 96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본선에는 8개 팀이 올랐다. 대회 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신설된 가운데, 국회의장상(최우수상)은 서울대 로스쿨팀(안민영·김은서·김희중)이 차지하며 첫 우승을 기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법률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대회의 의미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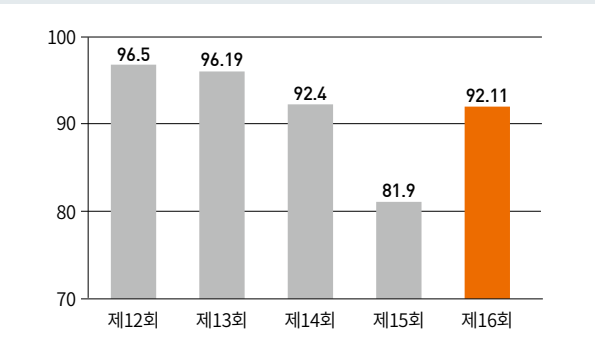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서울대 로스쿨 팀[사진=손잡고 제공]

issue 05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2.1%…전년 대비 큰 폭 상승

올해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92.11%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토) 치러진 시험에 2,356명이 응시해 2,17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지난해 81.09%보다 11.02%포인트 높아졌으며, 재작년 92.40%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전국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가운데 28문항 이상을 맞혀야 한다.



사람과 술, 그리고 법. 언뜻 어울리지 않는 세 가지를 함께 품은 청년이 있다.
 법은 차갑게 이성을 세우고, 술은 느슨하게 감성을 풀어주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살아 숨 쉬게 만든다. 그는 이 셋을 조율하듯 끌어안으며,
 언젠가 실력과 마음을 동시에 갖춘 좋은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놓치지 않는다.

“실력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갖춘 법조인이 되고 싶어”

Q. 로스쿨 창 독자들에게 본인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A. 한양대 로스쿨 17기에 재학 중이다. 스스로를 소개할 때는 늘 ‘법·술·사 이상곤’이라고 말한다. 법과 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나는 본래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즐긴다. 법은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술은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그래서 나는 법과 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다.(웃음)

Q. 학부 시절엔 어떤 공부를 했나?

A. 철학을 전공했다. 어릴 때부터 인간은 참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존재라고 느꼈다. 정말 선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항상 선하거나 항상 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철학 공부로 이어졌다.

Q. 로스쿨 진학 계기는?

A.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을 벌면서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꿈이나 행복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결국은 가정의 행복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찾게 되지 않나. 그런데 변호사는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진지하게 ‘사람과 사회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느꼈다.

Q. 철학과 법학은 비슷한 면이 있는 건가?

A. 철학도 법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학도 인간 사회의 질서를 규율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학문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철학은 법학의 기초를 닦아주는 학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할 때 법학이라는 새로운 공부에도 큰 거부감이 없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이
 상
 곤

부감이 없었다.

Q. 한양대 로스쿨 자랑을 해달라.

A. 여러 로스쿨 가운데서도 한양대는 학생들의 학부 전공 구성이 가장 다양한 편이다. 그만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다. 학생들의 성향 역시 경쟁보다는 서로 돕고 돈독한 분위기에 가깝고, 교수님들도 헌신적이다. 최근에는 2학년 선배들이 졸업생 선배들과 함께 법률 실무경연대회를 열어 후배들과 실무적인 고민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특히 자랑스럽다.

Q. 로스쿨에서 두 번째 학기를 맞았다. 지난 한 학기는 어떻게 보냈나.

A. 1학년 대표를 맡아 바쁘게 지냈다. 동시에 가급적 많은 학회와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려고 노력했다. 10개 안팎의 학회와

3개의 동아리에 참여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 큰 의미가 있었다. 공부에서는 루틴을 지키려 애썼다.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가장 먼저 공부를 시작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난 학기에는 그 습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웃음)

Q. 10개의 학회에 참석하고, 동아리 활동까지 했는데, 1학기 수석을 차지했다. 비결이 있나?

A. 수업 전 예습이 큰 도움이 됐다. 교수님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데, 수업 시간에 처음 이해하기보다는 미리 예습을 통해 큰 틀을 잡아두고 강의를 들었다. 수업에서는 이해한다기보다 교수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확인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나만의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은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비결 같다. 무엇보다

다 운이 좋았다.

Q. 로스쿨 입학 후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은?

A. 형법 과목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 처음엔 많이 헤맸다. 그런데 기말고사 후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으러 갔을 때, 나의 중간고사 답안과 기말 답안을 나란히 보여주시며 “공부 열심히 했구나”라고 말씀해주셨다. 그 순간이 가장 큰 성취감으로 남아 있다.

Q. 하루를 어떤 루틴으로 살아가나?

A. 아침은 달리기로 시작한다. 30분 정도 뛰 뒤 학교에 와서 두 시간가량 공부하고 수업에 들어간다. 2학기부터는 수업 사이에 빈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에는 앞서 들은 내용을 복습하거나 다음 수업을 예습하는 데 활용한다.

Q. 법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변했나.

A. 무엇보다 사고가 논리적으로 변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순을 발견하게 되더라. 또 형법에서 다루는 흉악한 판례들을 접하다 보니 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강해졌다. 준법의식이 확실히 높아졌달까.(웃음)

Q. 공부 이외에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A. 정신적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지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 수석도 하고 대표도 맡았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쁘지만, 그 기쁨에 루틴이 깨져버리면 오히려 해롭다고 생각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평상심을 지키며 살고 싶다. 지나친 기쁨도 슬픔도 건실한 행복에 해로운 것 같다.

Q. 로스쿨에서 평상심 유지하기가 가능한가?(웃음)

A. 내신 관리나 변호사시험 합격 같은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다만 자신을 잘 알면 하루가 불행하지는 않다. 매일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부와 성적 관리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녹차를 좋아한다면 카페에 들러 녹차한 잔을 즐기는 식이다. 불안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하루하루를 작은 행복으로 충실하게 채울 수는 있다.

Q. 상곤님의 소확행은?

A. 부끄럽지만 술이다.(웃음) 술자리를 워낙 좋아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도 크다. 사실 술 자체를 좋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기를 한다는 이상곤 원우



학교 앞, 종종 찾곤 하는 위스키 바(bar)에서

아해서 위스키, 와인, 소주, 맥주 등 주종을 가리지 않는다. 운동도 좋아한다. 운동하는 시간에는 오롯이 생각을 비울 수 있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운동을 꼭 권하고 싶다.

Q. 졸업 후에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

A. 최근 노란봉투법 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 수상은 못 했지만 참여 과정에서 노동법이 사람과 밀접하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그만큼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아직은 1학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하

고 있지만, 노동법 분야도 적성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Q.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A. 나는 늘 ‘좋은’에 대해 고민한다. 막연하지만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 법조계 원로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법조인이 무엇인지 여쭙보곤 하는데, 대답은 다양하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이성과 감성을 함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애초에 법학은 논리의 학문이라 감성이 직접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를 다루는 만큼 감정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인간과의 접촉을 이어가며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이성과 감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력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갖춘 법조인이 되고 싶다.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고 가는 것이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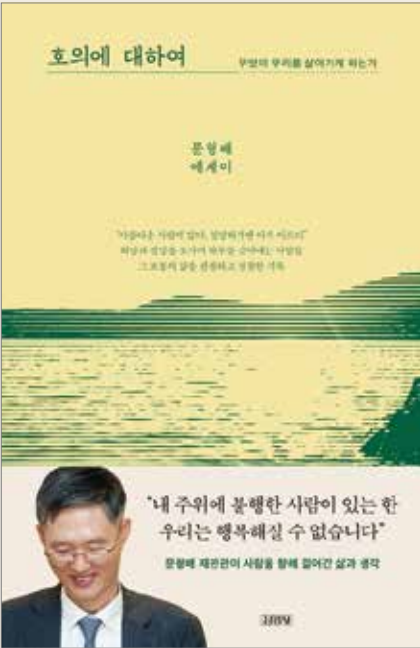
Q. 로스쿨 입시가 진행 중이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A. 무엇보다 스스로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로스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두 치열하게 공부해 온 이들이다.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목표를 이루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기에 끌려 선택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방법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만큼 높은 성과를 내는 비결은 없다. 건승을 기원한다!

호의에 대하여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첫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는 법정과 일상에서 마주한 사람과 세상, 그리고 정의와 공감에 대한 생각을 차분하게 풀어낸 책이다. 부산·경남 지역 법관으로 평생을 보낸 저자는 판결문 너머의 삶을 성찰하며, “내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재판정의 이야기부터 산책길에서 만난 나무, 인생의 지혜를 전한 책과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약 120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공직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그의 시선은 법을 넘어 인간의 선의를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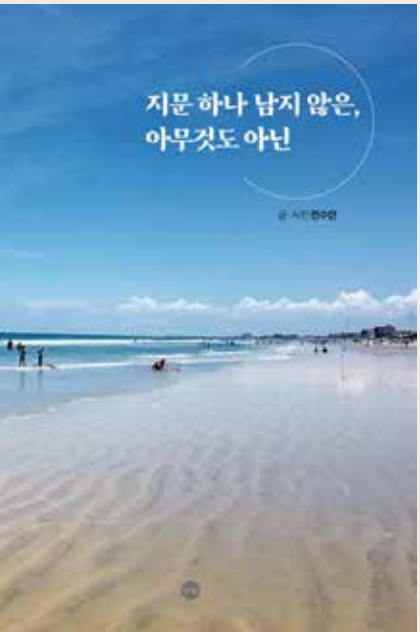
저	자	문형배
출판사	김영사, 408쪽	



지문 하나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한 법조인의 따뜻한 시선

전수안 전 대법관의 칼럼집 《지문 하나 남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은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자가 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남긴 연설문, 기고문, 칼럼을 한데 모은 작품이다. 2006년 여성 대법관 2호로 임명된 그는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 대신 인권·사회단체에서 공익활동에 전념해왔다. 이번 책에는 대법관 취임사와 퇴임사를 비롯해 인권, 기본권, 사회적 약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통찰이 담긴 47편의 글이 수록됐다. 법조인의 책임과 양심, 사회적 균형감각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사법 불신이 짙은 오늘, 법률가와 법학도를 비롯한 모든 독자에게 깊은 성찰을 건넨다.

저	자	전수안
출판사	도서출판은빛, 382쪽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K-쇼핑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올해도 성황리에 열렸다.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열띤 경연을 펼치는 대회 참가자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회사에 나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중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정 변호사(전 공정위 비상임위원)도 “참신한 소재, 시대와 산업을 읽는 통찰력, 팀워크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경연을 계기로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장차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심사 중인 심사위원들

■ 참가 자격

- 전국 대학교(원) 및 로스쿨 학생
- 팀 인원 제한은 없으나, 본선 참가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

■ 대회 절차

참가신청서 접수	참가팀은 식물 이름으로 명칭을 지어야 함.
▽	
예선 경연대회 자료 제출	총 30쪽 이하(심사보고서, 피심인 의견서를 제출)
▽	
본선 경연대회 자료 제출	총 30쪽 이하(예선과 동일, 추가해서 30초 분량의 팀별 발표 내용 자료 별도 제출)
▽	
본선 경연대회 개최	1박 2일간 경연대회 진행



수상자 단체 사진

■ 심사 방법

- 블라인드 심사 : 제출자료 및 경연 시에도 소속 대학을 알 수 있는 엠블럼 또는 학교명 표기 불가
- 예선 경연 : 서면 자료로만 평가하여 본선 진출팀 확정
- 본선 경연 : 서면자료, 경연 내용·능력을 종합하여 심사

소재의 시사성·참신성 및 사건 구성의 독창성	심사관의 사실 확인(입증)의 논리성	피심인 주장 내용의 논리성
40점	30점	30점

※ 본선 평가 기준은 본선 진출팀에게 추후 공지

■ 수상 팀

구 분	소 속	주 제
대상	경희대학교 로스쿨 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급성장한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고율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 행위
최우수상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 팀	생성형 인공지능(AI)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경쟁 과정에서 포털 플랫폼의 독점적 뉴스 기사 계약
	고려대학교 로스쿨 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요 예측 시장 점유율 47%를 보유한 기업의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보유 회사 인수

이 외에도 우수상 3개 팀과 장려상 14개 팀이 수상함.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우승팀 미니 인터뷰

“다섯 명이 모이고 보니
오각형이었다”

경희대 로스쿨 ‘풍풍국화’팀
(김범휘, 나은창, 양채현, 이창하, 전상훈)



풍풍국화팀 [사진=이창하 학우 제공]

Q. 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을 전해주세요!

A. 로스쿨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준비한 대회였는데,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기쁩니다. 방학 동안 대회를 준비하면서, 꼭 수상이라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동기들과 함께 서면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끼고 공정거래법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충분히 보람차다고 생각했는데, 의미 있는 결과까지 거두게 되어 더 뿌듯한 마음입니다.

Q. 팀원은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A. 저희는 경희대학교 로스쿨 17기 5명(김범휘, 나은창, 양채현, 이창하, 전상훈)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학기 중 스터디를 하며 친해지게 됐는데, 원내 학회 세미나를 통해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소식을 듣고 방학 때는 법학 스터디 대신 대회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팀을 구성해 출전하게 됐습니다.

Q. 팀명 ‘풍풍국화’는 무슨 뜻인가요?

A.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블라

인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가팀은 자신의 소속을 밝힐 수 없습니다. 대신 주최 측에서 매 해마다 식물의 이름, 산의 이름 등으로 팀명을 정해서 참가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팀원들과 어떤 팀명이 좋을지 의논하다 후보 중 하나였던 풍풍국화가 보기도 좋고, 부르기도 아름다워 결정하게 됐습니다.

Q.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A.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200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해온 경연대회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을 실제처럼 구성하여 겨루는 대회입니다. 예선에서는 팀별로 현실성과 개연성이 있는 가상 사건을 설정하고, 심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사실관계, 위반조항 및 법적 쟁점, 법리해석 및 적용, 심사관 조치 의견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선에서는 대회장에서 심사관과 피심인 대리인으로 나뉘어 사건의 개요 설명,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심사관 조치의견 그리고 피심인 의견과 최후진술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재현합니다.

Q. 풍풍국화 팀이 선정한 주제를 소개해주세요.

A.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을 하

좋은 주제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결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 대부분의 의결서가 법리적 논증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당일 풍풍국화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거나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면세점(예: 올리브영, 다이소, 백화점, 피부과·성형외과 등)이 직접 환급 절차를 처리하기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대신해주는 부가세 환급대행업체가 존재합니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가맹점 확보를 위해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량 가맹점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에서 업계 1위 업체가 리베이트를 무기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경쟁 업체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Q. 특별히 이 문제에 주목한 이유가 있나요?

A. 저희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팀원들과 식사 후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았고, 계산대 근처에는 ‘부가세 환급 가능’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백화점이나 피부과를 가보니 대부분 동일한 환급대행업체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K-팝, K-뷰티, K-푸드 등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 규모와 부가세 환급대행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는 아직 리베이트 관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정 업체가 과도하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불공정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자 본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Q. 예선 심사를 위해 심사보고서, 피심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작성 팁을 준다면요?

A. 좋은 주제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결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대회 당일 풍풍국화팀 [사진=이창하 학우 제공]

고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 대부분의 의결서가 법리적 논증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공정거래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신선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다른 의결서들과의 차별점을 둘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Q. 변론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A.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변론과 유사하게 변론을 진행하는 것을 주안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우선 심의관 측과 피심인 측의 대립 구도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는 기존 심의서의 구조와 달리, 변론은 각 쟁점마다 심의관의 주장에 곧바로 피심인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심

의서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용 PPT를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었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식,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기존 심의서의 내용을 최대한 시각화했습니다. 위의 작업들은 품이 많이 들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제에 대한 팀원들의 이해도 또한 더욱 높아졌고, 본심에서의 변론이 좀 더 현실성을 띠게 된 것 같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A. 대회 준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난감한 지점이었습다. 로스쿨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었기 때문에 방학임에도 학업 보충과 다음 학기 준비 그리고 팀원 저마다의 프로그램 참여로 다 같이 모일 시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본선기간 중에는 팀원의 상당수가 여름방학 기간 중 도쿄에서 진행

된 단기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낮에는 해외 로스쿨에서 수학하고 밤에는 대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 팀은 서로 양보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Q. 우승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팀원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뛰어났다는 점, 그리고 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었던 팀 구조에 우승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5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소수 인원만으로 구성되어 8~10명 정도로 구성된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각자가 맡은 영역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깊이 몰입할 수 있었고, 팀원들 간 의견교환·의사합치도 비교적 간명하게 이루어진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강점이 뚜렷했기에 역할 간의 시너지도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여 팀에 전진성을 부여하는 사람, 어떤 역할을 맡겨도 일정 수준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사람, 죽은 보고서도 살리는 편집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녹아들어 팀원 간의 아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두 달랐습니다. 이러한 조화가 저희 팀만의 강점이 되어,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제24회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양질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련 지식 없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최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제2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대상작

37세, 파산법인대표의 로스쿨 생활기



이나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6:00 AM, 30대 압구정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생의 도전]

서울에서 법인회사를 운영하던 30대의 저는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진 빚쟁이가 됐습니다.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갑자기 물려든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 7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회사 옆 파리바게트의 오픈조 알바를 했습니다. 행여나 직원들이 볼까 봐, 직원들 출근 시간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리트 공부를 했습니다. 천운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리트 성적을 받았고,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에 고향인 전주에 있는 전북대 로스쿨에 입학 원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한남대교에는 자살방지 펜스가 없다.]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회사 사정은 더 악화되었고, 새벽에 주 7일을 나가던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비용으로는 사무실 월세 비용도 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직원을 모두 정리했고, 낮 시간에는 회사 일을 하고, 오후에 2시간 정도 짬이 날 때 유치원 승하차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한의원 인포데스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승하차 알바를 하던 유치원은 압구정에 있는 영어유치원이었습니다. 한남동 빌라촌에 사는 유치원생들의 하교를 시켜주고 한남대교를 걸어오며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면접은 봤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나 같은 30대 후반 여성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던데... 막상 붙어도 학비는 어떻게 하고, 당장 책 한 권 사서 볼 여유가 없는데 로스쿨에 붙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만 5명이라는 6살 아이를 집에 내려다 주고 걸어서 돌아오던 길, 노을이 너무 예뻐고 한강 둔치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던 그야말로 죽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한남대교에는 다른 다리와 달리 자살방지 펜스가 없고, 오히려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발코

니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길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여기서는 뛰어내리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는 채 지내다 로스쿨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 강남을 떠나 고향인 전주로 내려옵니다.

['프로 서울 당일치기러']

회사는 결국 파산조치를 취했습니다. 보통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 파산도 함께 진행하지만, 그 경우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에 1억 원이 훌쩍 넘는 개인 부채를 끌어안고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입학은 했지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느라 새내기의 설렘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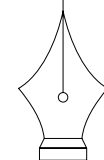
파산관재인 대면 진술, 재판 참여, 아직 정리되지 않은 회사 수습까지 1학년을 다니며 학기 중의 1/4은 서울 당일치기를 다녔습니다. 5시 첫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면 8시 30분이 됩니다. 오전에 일을 보고, 곧바로 내려와 오후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누나, 오늘도 서울 다녀왔어?”,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 일까지 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파산관재인에게 독촉 전화가 오던 어느 날, 동기들에게 사실을 고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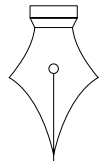
[내가 술 한 병 덜 마실게]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를 앞둔 날, 비밀상자를 풀었고 독이 터진 것마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7살의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한 저는 우리 기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학생입니다. 10살 넘게 어린 나의 동기들은 한참을 그렇게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나 사놓고 안 보는 책 많아”, “내가 술 한 병 덜 마실게, 그걸로 맛있는 거 자주 사줄게”. 다정한 위로가 쏟아지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서툴게 고백한 저의 고민을 보듬어주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보는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졌나가요?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겉으로는 여전히 나를 인생 선배로, 속으로는 더 깊은 마음으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학년에 올라가기 전, 정말로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말에 동기들 모두가 2년만 함께 의지하고 버텨내자며 뜯어말렸습니다.

[학교에서 문제집이 가장 많은 사랑받는 로스쿨생]

한 사이 좋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지 한 단을 줄여달라고 하자 어머니가 한 단을 줄이고, 딸이 한 단을 줄이고, 막내가 한 단을 줄여서 반바지가 되어버렸다는 옛이야기를 아시나요? 학교 선배에게 얻어왔다는 책, 교수님께 받아왔다는 책, 강사를 바꿔서 이제는 보지 않는다는 책, 1년 지났어도 바뀐 내용이 거의 없어서 신판과 똑같다며 주는 책. 저는 우리 기수에서 책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학원에서 듣는 인터넷 강의에서 좋은 내용을 듣고 오면 꼭 와서 알려주는 동기, 공부법을 모르고 헤매는 것 같으면 옆에 붙어서 알려주는 동기. 간식거리를 사면 꼭 대용량으로 많이 사서 내 자리에 두고 가는 동기. 동기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로스쿨생인 저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책이 많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마주한 빛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휴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때마다 옆에서 붙들어주는 동기들 덕에 저는 오늘도 학교를 다닙니다.





[쓰리잡을 뛰는 로2 학교생활]

점심시간에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밤에는 과외 수업을 하며, 주말에는 서울에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늦게 입학한 로스쿨에서 젊은 동기들과 공부하려니 체력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친하게 지내는 동기들이 모두 상위권 성적의 동기들이라 공부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방학 때는 무조건 다음 학기에 들을 과목 예습을 해야 합니다. 최소 기본 인터넷 강의와 기본서 교재라도 다 보고 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로스쿨 수업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미 선행학습이 완료됐다는 걸 전제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처음부터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면 변호사시험 진도를 다 끝낼 수 없습니다. 설사 처음부터 찬찬히 알려주시더라도 학사 일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범위를 꼼꼼하게 보기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일회독이라도 과목 예습을 하고 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들으며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어야 하고 그 시간을 변호사시험과도 연결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방학 중에 일회독을 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해당 범위의 문제는 5개 정도라도 풀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좋습

니다. 금방 수업에서 들은 부분을 바로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 대비도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사례는 반드시 교내 스터디를 통해서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끔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일부 교수님의 수업은 변호사시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실 교수님들 모두 번갈아 가면서 변호사시험을 출제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게 생기면 가장 빠르게 여쭙볼 수 있는 대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년의 로스쿨 생활은 정말 매우 짧습니다. 저는 1분 1초를 쪼개어 공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글을 마치며]

부디 내후년에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초시 합격 후기로 다시 한 번 공모전에 참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모전 수기를 쓰면서 저의 로스쿨 준비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생활과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실 여러분, 로스쿨 생활에서 교수님과 동기들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위에 있는 내 동기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추승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법무법인 미션 실무수습 후기 - 시야를 넓히다



I. 법무법인 미션 실무수습에 지원하다

법무법인 미션(이하 ‘미션’)이라는 이름은 이미 재학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세르프’에 가입해 활동하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된 것은 오롯이 지원서 양식에서 이 법무법인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지원자가 그리는 글로벌 로펌의 미래’ ‘삶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은 내가 로펌 실무수습 자기소개서의 문항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이었다. 지원서 양식의 막바지에 첨부되어 있었던 대표 변호사님의 “우리 법무법인 미션은 새로운 가치와 존경받는 로펌을 꿈꾸는 법률가들의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에게 응당 던져야 하고 우리 후배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여러분에게 공유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와 함께할 다음 세대 법률가들을 발굴해 가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답변의 시간이 참여하신 모든 후배 분들에게도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읽고 꼭 이 로펌을 체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낯선 자기소개서 질문들을 하나하나 고민하며 솔직한 대답을 채워 나갔고, 그 솔직함이 통했던 탓인지 합격 발표를 받고 실무수습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II. 낯선 과제를 전달받고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흥미를 느끼다

처음 사무실에 방문해 법무법인 소개를 받고 바로 과제를 전달받았다. 과제를 본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고해야 할 법이 로스쿨에서 1년 반 동안 공부한 기본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생소한 법을 참고해 실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학기 중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에서 “낯선 법을 볼 때는 늘 처음에 나오는 정의조항을 봐야 한다”라고 해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고 조금씩 법조문을 분석해 가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갔다. 나름대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고안해 내고 자료 조사를 해 가다 보니 주장의 요지와 근거가 조금씩 틀을 갖춰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

게 첫 과제를 마치고 나니 점점 자신감이 쌓여 갔고, 이어지는 다른 과제들 역시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에도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며 파트너 변호사님의 강연, 다른 변호사님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스스로의 인사이트를 키워가던 중 두 번째 과제를 안내받게 되었다. 두 번째 과제는 스타트업, 신생 기업이 시행하려는 사업이 현행법상의 규제에 의해 가로막혔을 때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제였다. 나름대로 수많은 법들을 뒤지며 가능한 우회로를 찾으려 애썼으나, 변호사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답안은 ‘규제 샌드박스(sandbox,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였다.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규제 샌드박스를 떠올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다. 학부 시절 행정학을 전공하였고,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며 규제 제도 및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많이 공부한 경험이 있음에도 필요할 때 이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이었다. 지금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 역시도 향후 필드에 진출해서, 혹은 언제라도 필요한 때에 잘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다.

III. MT를 통해 미션의 사람들, 인턴 동기들과 함께 교류하다

미션 실무수습을 나간다고 했을 때 로스쿨 동기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있다면 실무수습 과정의 하나로 MT를 간다는 것이었다. 학부 시절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가는 MT여서 설레는 마음 반, 변호사님들과 함께 MT를 간다는 점에서 긴장된 마음 반으로 출발한 MT였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마치 학부 시절 새내기들을 챙기는 2년차 선배들처럼 변호사님들께서 모두 너무 잘 대해 주셨고, 함께 MT를 간 동기들 역시 적극적으로 게임을 준비해 오고 프로그램에 임하는 등 모두 즐거운 MT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었다. 자칫 실무수습처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을 뻔했던 사람들과 더욱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IV. 마치며

미션에 실무수습 지원서를 내고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늘 공익과 인권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 로스쿨 진학시 희망하는 진로도 그쪽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진학한 바 있다. 그런 나에게, 공익 혹은 인권과 얼핏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스타트업 기업 법무 위주의 펌인 미션 실무수습 지원은 또 다른 큰 도전이었다. 지금에 와 돌이켜 보면 그 도전을 감행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시야를 더욱 넓혀 준 좋은 경험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를 경험하며 또 다른 관심사와 희망 진로를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법무법인 미션에서의 실무수습을 계기로 학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업을 듣고 있으며, ‘리걸테크실무’ 수업을 수강하며 미래 법조인으로서 리걸테크를 실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며 여러 첨단 기술이 업무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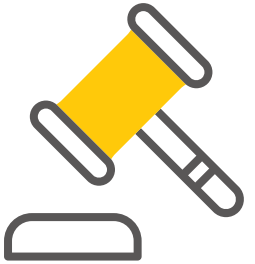
나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 준 법무법인 미션 및 대표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님, 인턴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신영 변호사님과 이다영 변호사님, 커피챗, 과제 부여, MT 참가 등을 함께해 주신 김서룡 변호사님, 여인경 변호사님, 장효준 변호사님, 손희원 변호사님, 헬레나 권 변호사님, 그리고 함께 실무수습에 임한 동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윤보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법과대학 해외교류 프로그램 후기 - 2주간의 연수 성과



2025년 6월 27일(금)부터 7월 11일(금)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맺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법과대학(Tashkent State University of Law)을 방문하여 올해 초 개소한 동 대학 한국법센터에서 박안서 교수님의 지도 아래 2주간 자유 연구를 진행했다.

연수의 목표는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와 고려인 사회를 이해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처음이 아니었는데, 이번 방문은 2018년에 고려대학교 재학 당시 참여했던 디아스포라로서 고려인과 새로운 에스노스케이프로서 실크로드의 현대적 가능성을 주제로 한 우즈베키스탄 단기 연수의 연장선이 되었다.

2주간의 활동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타슈켄트 법과대학의 교원 및 현지 로펌 변호사 인터뷰, 컨퍼런스 참석, 리걸클리닉 및 법혁신센터 방문, 고려인 관련 기관 방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수 배경

본교 뉴스레터에서 양교의 MOU 소식을 접한 것이 연수의 계기가 됐다. 향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CIS 지역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타슈켄트 법과대학과의 교류의 일환으로서 우즈베키스탄 법제 연구 프로그램 마련을 양교에 건의했다. 이를 위하여 과거 본교와 일본 및 대만 로스쿨 교류 프로그램, 타슈켄트 법과대학 여름학교 프로그램, 타 로스쿨 해외 실무수습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마침 올해 초에 타슈켄트 법과대학에 한국법센터가 개소되었는데 박안서 센터장님께서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영어와 노어로 작성된 이력서 및 연수 계획서, 러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수증, 러시아어 자격증, 로스쿨 재학증명서, 학부 졸업증명서를 센터장님께 제출한 뒤 국제협력처의 승인을 받아 이번 연수가 이뤄졌다.



한국법센터 앞에서

[한국 기업 관련 법률 업무는](#)
[현지 우즈베키스탄 로펌뿐만](#)
[아니라 한국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셨다.](#)
[향후 우즈베키스탄 법률](#)
[시장에서 주목할 분야로는](#)
[디지털화 및 리걸테크, 기업법](#)
[및 투자법, 노동·이민, 환경규제,](#)
[국제사법 및 분쟁](#)
[해결 영역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한국 변호사에게는](#)
[국제무역법, 투자법, 인허가](#)
[절차, 국제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갖출 것을](#)
[권고하셨다.](#)

우즈베키스탄 법제 연구 : 변호사 인터뷰 및 상법 컨퍼런스 참여

타슈켄트 법과대학의 교원인 지식재산권, 형사법, 노동법 변호사, 법혁신센터의 상법 변호사, 현지 로펌 ASHINA의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상법 컨퍼런스에도 참여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법제를 연구하고 향후 커리어 방향도 모색할 수 있었다.

6월 30일에 진행된 상법 컨퍼런스는 ‘상법 시스템에서 회사 법률 관계의 역할 : 현대적 접근 방식과 발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이집트, 카자흐스탄, 중국 등 한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의 대학교와 기관들의 발표가 있었다. 국제적 경험과 국가적 특성(중국의 사례)을 중심으로 본 디지털 경제에서의 회사법, 이슬람 및 서구의 법 체계에서 법인격의 역할, 기업 지배구조의 디지털화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 법제와 해외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발표를 들으며 보다 거시적·구조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법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

7월 2일에 지식재산권 전문 Shukhrat Yokubov 변호사님과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과 관심,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지식재산 기반 산업, 한국 기업이 상표·특허 출원 시 자주 겪는 문제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변호사님은 위조품 압수 권한이 직권으로 부여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는 등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관심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핀테크 분야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셨다.

연간 1.5만 건 상표출원 중 한국과 같은 우즈베키스탄 비거주자의 비중이 높고, 한국 기업은 상표분쟁의 일환으로서 위조품 이슈에 자주 직면하므로 현지 변리사 선임 의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셨다.

7월 3일에 진행된 형사법 분야 인터뷰에서, Odil Aripov 범죄수사학·법과학학과 조교님, Atobek Davronov 형사소송법 강사님, Dilbar Suyunova 교수님께서는 우즈베키스탄 형사법 특징으로 사형 적용 근거 축소(사실상 폐지), 대체 처벌 수단 확대 등 인도화 추세를 꼽으셨다. 그리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자주 겪는 형사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법혁신센터 인터뷰 사진

인은 일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허가 없이 근로하거나 은행을 우회하여 현금 결제를 시도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문제에 자주 직면한다고 설명하셨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권리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은 형사소송법상 통역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가 있으며 국민과 동일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히셨다.

7월 7일에는 법혁신센터에서 상법 전문인 Otabek Davronov 변호사님을 만나 한국 법률 사건의 특징, 우즈베키스탄 법률시장 전망, 우즈베키스탄 활동을 희망하는 한국 변호사를 위한 커리어 조언 등을 질의했다. 변호사님께서는 한국 관련 법률 사안은 투자 프로젝트 관리, 합작투자 설립, 계약상 법적 관계 규정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 에너지, 자원, 인프라 등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늘었다고 답하셨다.

또한, 이러한 한국 기업 관련 법률 업무는 현지 우즈베키스탄 로펌뿐만 아니라 한국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셨다. 향후 우즈베키스탄 법률 시장에서 주목할 분야로는 디지털화 및 리걸테크, 기업법 및 투자법, 노동·이민, 환경규제, 국제사법 및 분쟁 해결 영역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한국 변호사에게는 국제무역법, 투자법, 인허가 절차, 국제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갖출 것을 권고하셨다.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 로펌인 ASHINA 로펌을 방문하여 Shavkat Juraboev 변호사님을 인터뷰했다.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현지 로펌들과 달리 ASHINA 로펌은 민법, 공법뿐만 아니라 형법까지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소개하셨다. 그리고 주로 중국 로펌과 협력하지만 한국 로펌의 경우 김·장 법률사무소와 협력한 적이 있다고 설명하셨으며, 카지노 개설 등 해당 로펌의 한국인 형사사건을 공유해 주셨다. 한국의 변호사가 된 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활동 방향에 관해 조언도 구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AI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문보다는 송무를 할 것을 권하셨다. 우즈베키스탄의 송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필요한데,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와의 결혼이나 부동산 구매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송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려 주셨다.

이렇게 2주간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들은 앞으로

내가 CIS 지역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해외 연수는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관심사에 맞추어

이루어져 원하는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

변호사시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로스쿨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흔치 않음을

알고 있다.

강 예카테리나 변호사님과의 인터뷰 사진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사회 연구 : 고려인 변호사 인터뷰 및 관련 기관 방문

고려인 변호사님을 대상으로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인터뷰하고 황만금 박물관, 아리랑 요양원, 고려인 문화센터와 같은 고려인 관련 기관에 방문함으로써 고려인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연구하였다.

6월 30일에 타슈켄트 법과대학의 교원이자 고려인 청년협회 신세대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강 예카테리나 변호사님을 만나 고려인이 겪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뷰했다. 변호사님은 정부 요직에 고려인들이 많이 진출했을 정도로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차별은 없으며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기회의 원칙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답하셨다. 현재 많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미숙하여 기존의 경력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대개 단순 노동의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한국에서 수년간 일하며 자신의 기술을 잃어버려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택시 기사 등 제한된 직업만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알려 주셨다.

7월 1일에는 황만금 박물관을 방문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황만금 농장 출신의 고려인인 황 폴리나 씨께 고려인의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강제이주사와 황만금 농장의 성과, 이후 고려인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황 폴리나 씨는 1937년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척박한 땅으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임에도 빵을 내어 준 고마운 존재라고 표현하셨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당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스탈린이 가장 잘한 유일한 점은 고려인을 보낸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잘 정착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황만금 농장이 있었다. 폴리나 씨께서는 황만금 농장이 소련에서 5년에 1번씩 가장 훌륭한 마을에 수여되는 깃발을 무려 6개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고 역설하셨다.

같은 날, 강제이주 1세대부터 그 이후 세대의 고려인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 아리랑 요양원에도 방문하였다. 요양원은 고려인 초기 강제이주 정착지이자 고려인 밀집지역인 시온고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아리랑 요양원장님께 요양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

은 뒤 고려인 어르신들을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의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고려인과 모국의 유대 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요양원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강제이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고려인 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 대화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7월 9일에는 고려인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원하여 건립된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하였다. 강제이주 등을 주제로 한 고려인 화가의 그림 전시 공간과 고려인 단체 모임이 이루어지는 방 등을 둘러보았으며 고려인 청년협회인 신세대의 모임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황만금 박물관과 아리랑 요양원이 고려인 사회의 과거를 보여주는 곳이



ASHINA 로펌 인터뷰 사진

었다면 고려인 문화센터는 고려인 사회의 현재를 비추는 공간으로서 고려인 커뮤니티의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수를 마치며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법률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및 법률 협력의 기회와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현지 변호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송무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시민권이 요구되는 등 여러 제한 때문에 한국 로펌과 한국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과 현지 로펌 사이의 중개나 자문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

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어가 모어인 고려인 변호사의 활약을 보며 우즈베키스탄 내 러시아어 구사 변호사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함양할 역량으로서 우즈베크어 학습과 우즈베키스탄 송무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여러 선택지를 알게 되어 유익했다.

그리고 이번 고려인 연구를 통해 고려인과 우즈베키스탄 민족과의 관계성, 고려인의 사회적 위치와 커뮤니티의 존재, 새롭게 직면한 문제를 알게 됨으로써 고려인 사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장되었다. 아울러 노동법학과 사무실 방문과 현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비재외동포인 우즈베키스탄인의 한국 취업 수요와 그 배경이 되는 국제정치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려인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에 대한 일련의 경험은 노동과 이민 분야의 정책·입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당장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경험들이 훗날 하나의 궤적을 이룬다는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s 통찰처럼, 이번 여름 우즈베키스탄에서 남긴 한 점은 분명한 방향으로 연결될 것이다. 호라즘 음식 등 전통음식을 함께 먹으며 현지인들과 문화를 교류하고, 교수, 호텔 지배인, 사업가를 포함해 여러 영역에서 활약하시는 한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지면 관계상 다 담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2주간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들은 앞으로 내가 CIS 지역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해외 연수는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관심사에 맞추어 이루어져 원하는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 변호사시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로스쿨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흔치 않음을 알고 있다.

본교에는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입학하는 원우들이 많은데 그만큼 다양한 개개인의 관심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서강대 로스쿨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양교, 특히 박안서 한국법센터장님, 홍대식 원장님을 비롯한 본교의 교수님들, 안석 팀장님을 비롯한 행정실 선생님들, 기꺼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주신 우즈베키스탄 시민들과 한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را 드린다.

“김앤장이 찾는 인재는? 신뢰·성실·팀워크 갖춘 법조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김앤장이 바라는 인재상은
단순히 ‘성적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기본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신뢰성,
클라이언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태도,
그리고 팀워크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종국·김계정 변호사를 만나
김앤장의 채용 철학과
인턴십, 자기소개서와
면접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을 들어봤다.



인터뷰이.
박종국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인터뷰이.
김계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종국 변호사: 2012년 김앤장에 입사해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종국 변호사입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는 주로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헬스케어,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계정 변호사: 저는 2013년에 입사한 성균관대 로스쿨 2기 출신 김계정 변호사입니다. 김앤장에서는 변호사마다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주로 핀테크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Q. 김앤장이 바라는 인재상은?

박종국 변호사: 신입 변호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료 검토 등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을 원합니다. 채용 과정이 길고 세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고객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성적이나 이전 활동,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의 발언, 표정, 제스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 인재 채용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나요?

김계정 변호사: 저희는 특정한 한 가지 요소만 보고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성적이나 개인의 성장 과정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앤장과 잘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성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살아온 과정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무실에서 잘 적응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팀워크 속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요소만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계정 변호사(왼쪽)와 박종국 변호사(오른쪽)

박종국 변호사: 많은 분들이 성적의 비중을 궁금해하시는데,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성적은 지원자가 얼마나 꾸준히 공부해 왔는지, 또 법률적 기초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따라서 로스쿨 성적과 변호사시험 성적을 충분히 참고 합니다. 다만 성적은 여러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며,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김계정 변호사: 인턴십 과정에서는 기본소양 강의와 과제 수행을 비롯해 간담회, 조

별 식사, 멘토 변호사와의 면담 등이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과제 수행과 멘토와의 교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류만으로는 지원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역량과 태도를 지녔는지를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제는 주로 일반 기업 관련 사례에서 출제되는데, 로스쿨 1학년 수준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특정 법률 지식을 묻기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리절마인드,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Q. 어떤 자기소개서가 눈에 띄는 자기

소개서인가요?

박종국 변호사: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지금까지의 경험, 자질과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학업과 다양한 경험 가운데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혹시 대단한 경험이 없더라도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담아, 앞으로 변호사로서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가 절대적인 평가 요소는 아니므로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에 적은 경험이나 관심사를 면접에서 제대로 설



저희는 면접에 ‘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로펌에서는 경영진이 보는 면접을 최종 면접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김앤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연차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 과정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답변할 수 있는 경험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진솔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Q. 김앤장은 최종 면접이 없다고 들었는데, 최종 면접 대신에 진행하는 절차가 있나요?

김계정 변호사: 저희는 면접에 ‘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로펌에서는 경영진이 보는 면접을 최종 면접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김앤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연차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

과정인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원자들은 여러 팀과 연령대가 다른 변호사들을 차례로 만나게 되며, 면접은 보통 두세 차례 진행되지만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면접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질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종국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지원 동기, 변호사를 지망하는 이유,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지 등을 묻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담긴 관심사나 활동 경력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분석·설명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답변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법률적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고난도 문제는 피하고, 로스쿨에서 배운 민사 등 기초 지식만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법률적 분석력과 리절마인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Q. 면접 시 평가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계정 변호사: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평가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면접관들이 지원자를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단점 역시 비슷하게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국 변호사: 물론 객관식 시험처럼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핵심은 ‘이 지원자가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평가가 거의 일치하는 편입니다.

Q. 인턴십 한 회차당 몇 명 정도가 신입 변호사로 선발되는지 그 인원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김계정 변호사: 정해진 인원이나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함께하고 싶다고 판단되는 지원자가 있다면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선발하려고 합니다.

Q. 인턴십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로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앤장은 어떤가요?

박종국 변호사: 김앤장은 현재로서는 인턴십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턴십은 로스쿨 학생들이 김앤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저희가 예비 법조인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2주 동안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공식 인터뷰, 비공식 식사 자리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원자의 관심도와 자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턴십 제도는 저희에게도 중요한 채용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인턴십 채용 외에도 법무관 채용이나 졸업 후 채용 등 여타의 채용 경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박종국 변호사: 법무관 채용 역시 로스쿨 재학생과 동일하게 서류,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면접은 보통 한두 차례, 경우에 따라 두세 차례 진행되며, 원거리 근무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한 차례는 대면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관심사와 변



김앤장은 신입 변호사들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주니어·시니어 선배가 멘토로 배정돼 사무실 생활 전반과 업무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업무나 생활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사로서의 의지, 법률적 사고를 평가한 뒤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계정 변호사: 졸업 후 채용의 경우, 재학 중 채용되지 않았는데 졸업 직후 곧바로 채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다양한 곳에서 경력을 쌓은 뒤 그 경험을 기반으로 김앤장에 입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Q. 입사 후에 팀 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김계정 변호사: 처음부터 특정 분야를 정해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입 변호사들은 여러 분야의 업무를 경험하면서 자신과 잘

맞는 영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너럴리스트로서 다양한 이슈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경험을 쌓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신입 변호사의 일과, 업무 루틴은?

박종국 변호사: 변호사마다 일과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사무실에서 서면 작성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기도 합니다. 출근 시간은 일반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퇴근은 업무 처리로 늦은 편이며 주말 근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하루 근무 시간이나 루틴일 텐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내부 전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밤이든 낮이든, 평일이든 주말이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페셔널로서의 변호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 신입 변호사의 처우나 복지 제도 등도 알 수 있을까요?

김계정 변호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미권에 비해 늦게 성장한 한국 법률 시장에서 김앤장이 10년 넘게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인재가 모여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원칙입니다.

Q. 신입 변호사들의 성비나 연령대, 학부 전공 등이 궁금합니다.

박종국 변호사: 올해 신입 입사자는 총 56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변호사가 22명, 남성 변호사가 34명입니다. 여기에는 법무관 15명도 포함됩니다. 연령은 만 24세에서

32세까지 분포하며, 평균은 만 28세입니다. 학부 전공은 매우 다양하고, 최근에는 이공계 출신 비율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Q. 김앤장만의 특별한 문화는 무엇인가요?

김계정 변호사: 김앤장은 신입 변호사들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주니어·시니어 선배가 멘토로 배정돼 사무실 생활 전반과 업무 방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업무나 생활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끝으로 김앤장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계정 변호사: 저 역시 로스쿨을 졸업하고 다소 늦은 나이에 김앤장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앤장의 문턱이 매우 높게 느껴졌지만, 도전을 통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법조인들께도 지나친 부담보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쿨 창·로스쿨타임즈 원고 모집!

여러분의 일상과 생각을 담은 글을 기다립니다.

주제는 자유!

- ✓ 학회 및 동아리 소개, 실무수습 후기
- ✓ 나만 아는 공부법 소개
- ✓ 내 동기 · 교수님 · 우리 로스쿨 소개
- ✓ 로스쿨 후배들에게 전하는 글
- ✓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느낀 점

그 밖에도 자유로운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분량 : 글씨크기 10pt, A4 1.5p 내외

원고 채택 시 :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신청 방법 : QR코드 스캔 → 오픈카톡 신청

* 원고와 함께 사진이 게재되는 기명 원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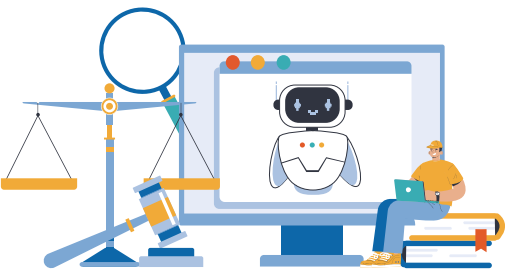
* 원고료는 게재된 달의 말일에 입금됩니다.

문의 : 02-752-2037



최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플랜이 도입되어 로스쿨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슈퍼로이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용 AI(ChatGPT, Gemini)등과 비교하여 법률특화 AI는 어떠한 점이 다를지 기대하며 슈퍼로이어를 사용해보았는데요, 한 달 여 기간동안 사용하며 느낀 점들을 학우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플랜 사용 후기



서혁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슈퍼로이어의 장점

기존의 범용 AI와 비교할 때 슈퍼로이어는 허구의 판례나 법령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이 적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시하는 경우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범용 AI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판례 번호와 판례 내용을 답변에 넣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는데요, 슈퍼로이어는 인용하는 판례, 법령 내용에 하이퍼링크도 적용되어 바로 원문을 확인하여 실재 여부를 검증할 수 있었고 자체적인 인용 적절성 평가 기능도 제공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가끔 원하던 맥락과 다른 내용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는 허구의 판례를 생성하는 것에 비해서는 미미한 문제점이며, 점차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법률 교과서를 직접 인용해 이론적 설명을 탄탄히 제공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슈퍼로이어는 박영사와의 제휴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법률 서적 데이터를 답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생성할 때 해당 교과서나 주석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보여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교과서를 찾아볼 필요 없이 이론적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의 특정 개념을 질문하면 관련 교과서 내용과

출처까지 답변에 표시하며 찾아보기 어려운 학설 대립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을 빠르게 얻을 수 있었고 책을 뒤져봐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AI 요약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판례 학습이 가능합니다. 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의 판례 검색 플랫폼인 빅케이스(BigCase)와 통합되어 작동합니다. 방대한 판례를 직접 일일이 읽기 전에 슈퍼로이어에게 우선 판례 요약요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해당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런 다음 요약요를 숙지한 상태에서 원문 판결을 읽으면 복잡한 내용도 한결 쉽게 다가온다고 느꼈습니다.

표준판례집 활용으로 OX퀴즈 및 사례 문제 연습이 가능합니다.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플랜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판례집의 판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빅케이스를 통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표준판례 원문을 바로 볼 수 있고, 슈퍼로이어를 활용하면 이 판례들을 기반으로 OX형태의 객관식 연습 문제를 생성하거나 사례형 문제를 만들어 풀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표준판례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수업에서 짚어주신 중요 판례들을 중심으로도 OX, 사례형 문제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플랜 관련 표준판례 활용 사례

를 풀면서 연습해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로이어의 단점

반면 아카데미 플랜의 이용량 제한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슈퍼로이어 유료 플랜은 연 사용량이 1800회, 3600회인 반면 아카데미 플랜은 연 300회로 이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AI 도구인 만큼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1년에 300번이라는 제한은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학술 지원용 플랜이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마음껏 프롬프트를 실험해보기에는 제약이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사용 초기에는 이용 횟수 소진이 걱정되어 적극적으로 기능을 탐구하는 데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점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며

챗GPT나 구글의 제미니(Gemini)와 같은 범용 거대언어모델들도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해 한국 법률에 특화된 AI서비스로 개발된 슈퍼로이어를 직접 사용해보니 그 정교함에 감탄하였습니다. 법률 문서 작성부터 리서치, 판례 요약까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능들이 많아 앞으로의 잠재력도 매우 커 보입니다.

로스쿨 재학 중인 지금부터 이런 법률 AI 도구에 익숙해져 두루 활용해 보는 것이, 훗날 실무에 나가서도 우리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슈퍼로이어의 향후 발전이 더욱 기대되며, 저를 포함한 예비 법조인 여러분도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법은 환대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 한국 사회에 환대의 공간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한상원 변호사

(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전) 육군 군법무관

“생각해 보면 장애인이 턱이나 계단이 1층 곳곳에 설치된 건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은, 비장애인이 투과 능력이 있는 ‘투명인간’의 도시를 방문하여 건물 1층의 출입문이 모두 잠겼거나 아예 출입문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중

SF 소설에 나올법한 “투명인간의 도시” 이야기가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했다. 대법원은 “모두의 1층” 판결이라 불리는 이 사건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24년간 95%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시행령이 오히려 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편 이 사건은 공개변론이 진행되었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하여 대법정에 임시 진입로가 설치되었고 장애인 당사자가 원·피고의 대리인, 소송수행자, 참고인, 방청인으로 변론과 방청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었다.

공익법단체 두루에 입사하여 장애인권 변호사의 길을 시작한 나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이 사건 사고이유서 작성이었다.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하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은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막아온 높은 장벽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지만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왜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의 문턱을 낮추었을까? 이른바 “시행령 통치”로 회자되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규칙 심사권을 적극 행사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 그리고 시행령 자체의 중대한 위헌성 등 다양한 이유가 거론된다. 그러나 나는 이 판결을 “환대”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환대를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 풀이한다. 그러나 환대는 이처럼 개인의 친절이나 호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류학자 김현경은 저서 『사람, 장소, 환대』에서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개념을 차용하여 환대를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때 “자리”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사회의 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뜻한다.

현실에서 장애인은 종종 “자리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점과 식당의 문턱 앞에서 매일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사회적 성원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 들어올 수조차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사회가 그에게 정당한 자리를 인



정하는가, 즉 그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환대는 쉽지 않다. 당장 작은 문턱 하나를 없애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려 해도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 심지어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따라온다. 그래서 환대보다는 외면이 합리적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다. 그렇기에 “모두의 1층” 판결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법은 여전히 절대 다수의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 또한 여전히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와 법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정당한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은 단순히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언어가 아니다. 사회가 구성원을 호명하고, 그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약속”의 언어이기도 하다. 법이 그 구성원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동등한 존엄을 가진 “사람”으로 호명하고, 그에게 정당한 자리를 인정할 때 법은 환대의 언어가 된다. 반대로 누군가의 “다름”을 이유로 공동체의 공간에서 배제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어는 어떠한 힘과 강제력을 지니더라도 법이라 할 수 없다. 역사가 증명하듯, 그것은 법의 형식을 빌린 불법이자, 다수의 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이 환대의 언어여야 하는 이유이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조문과 판례를 암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배우고 익히는 법이,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그러한 법을 어떻게 환대의 언어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모두의 1층” 판결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특히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법을 환대의 언어로 만들기 위한 법률가로서의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렇다면 법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언젠가 이러한 질문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으며, 한국 사회에 환대의 공간을 넓혀 나가는 길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A	I	와					
저	작	권	,		법		



박애란 변호사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
(현)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사
(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1726) 3부. 주인공은 천공의 섬 “라퓨타”를 갑니다. 그곳에는 괴짜 과학자들이 거대한 기계에 단어들을 모아놓고, 이를 조합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성형 AI, LLM(Large Language Model)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은 결국 유토피아가 되었을까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법처럼 마른 땅에 축축하게 핀 꽃처럼 우아한 규정이지요.

AI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AI가 만든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아이디어나 스타일·화풍·기법·장르적 특징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따라서 올 초 유행했던, 지브리‘풍’으로 만들어달라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인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새벽의 자리아” 만화 사건이 유명합니다. 작가는 만화의 이미지를 생성형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통해 만들었고, 글 부분은 직접 썼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만든 만화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했습니다.¹ 저작권청은 최종적으로 만화의 ‘그림’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고, 인간이 직접 쓴 글 부분,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 배열 및 조정한 것(편집저작물)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주었습니다.²

사실 저작권법상 가장 논의가 뜨거운 부분은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언론, 음악, 책 등 많은 분야에서 국내의 분쟁과 소송이 진행 중이고, 관련 판결도 일부 나오고 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이용³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고자, AI회사가 저작물 학습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사전에 맺거나 관련 합의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소버린(Sovereign) AI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가가 AI 기술과 데이터를 스스로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않으면 AI 제국이라고 불리는 선도국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국가 입장에서 선택지는 기술 개발 쪽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 자국의 AI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학습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TDM(Text and Data Mining)면책 규정 도입(‘공정이용’보다 더 널리 일반적인 면책 규정을 입법하는 것) 또는 공정이용 적용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으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최근 인상 깊게 읽은 남형두 교수의 저서 “공정이용의 역설-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경인문화사, 2025)은 이러한 논점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자와 작은 이용자와의 균형을 위해 만들어졌고, 일종의 시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대 기업이 TDM 면책이나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것은, 거인이 시소에 올라탄 것이나 다름없는 것. 책은 조세적 해법까지 논의를 밀어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빌 게이츠의 로봇세, 일본 머스크의 보편적 기본소득 등 인공 지능이 초래한 부의 불평등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AI로 인해 ‘가짜 노동’에서 해방되고,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가가치를 사회 전체가 나누는 방식으로 분배합니다.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될까요? 물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로 인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아질 것이며,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긴장, 모순, 경쟁, 박탈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 등장하는 실직의 세계. 적은 일 자리를 두고, 서로를 제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포스러운 세계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칠 전 AI와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한 작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AI가 자신의 화풍을 학습해서 ooo풍이라고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막 올 것만 같은 눈으로 질문하던 창작자의 물음에 나는 뚜렷한 웃음을 가져다 줄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문학과 법학은 대립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문학이 기본적인 권의 개념 풀이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나는 확인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바이마르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있고 난 뒤부터이다. (...) 어떤 개인이 눈물 나는 슬픔을 겪는다가 불행한 처지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개인이 소속된 사회와 국가의 구조, 그리고 여러 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오늘에 와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침묵의 뿌리, 조세희, 열화당(1985)}.

‘침묵의 뿌리’ 이후 40년이 지난 2025년의 우리에게, 어떤 선언과 법이 필요할까요? 큰 나무에 빛이 가려져 작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한다면, 큰 나무가 아무리 근사한 무엇을 갖고 있더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 눈물 나는 슬픔을 겪는다가 불행한 처지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 무엇이 인간다운 방향인지 정하는 것, 큰 나무 한 그루만 남기지는 않겠다는 결정. 이것은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 고유의 일입니다.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고 가치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인간만의 산물인 ‘법’이 해야 할 몫입니다.

1 참고로,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되는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기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6.)에 의하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로 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② 이용자가 AI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③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3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7조 등). 이 중 ‘공정이용 일반조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7기로 졸업한 뒤, 주식회사 셀트리온 사내 변호사, 특히 전문 로펌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일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로스쿨생분들을 무한 응원합니다.

저는 어느덧 8년 차 변호사가 되었습니다만, 아주 가끔 힘든 로스쿨 3학년 시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이 맘때면 수험생 분들의 몸과 마음이 크게 지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약사 출신이자 여러분들의 선배 변호사로서, 가을철 수험생활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수험생활 하기



긴 수험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더욱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가을철 면역력 관리, 이렇게 하세요

▶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하기

수험생들이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향상과 면역력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권장하며, 밤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늦잠을 자는 패턴보다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 효율성과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환절기 감기 예방법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해져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 한 번으로 일주일간 컨디션을 잃는다면 수험생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또한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

▶ 두뇌 활동을 돕는 오메가-3

장시간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에게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중요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아마씨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호두 5~6개 정도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비타민 B군

수험 스트레스로 인해 소모되기 쉬운 비타민 B군은 신경계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미, 달걀, 콩류, 녹색 채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식사로 현미밥과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종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C와 아연

환절기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필수입니다. 감귤류, 키위, 브로콜리 등에 풍부한 비타민 C와 굴, 소고기, 호박씨 등에 들어있는 아연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 두뇌 활동을 돕는 당류

포도당은 뇌 활동을 돕는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험생활 중에 특히 머리를 많이 쓰셔서 두뇌가 쉽게 지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초콜릿 류를 섭취하면 빠르게 두뇌를 회복시킬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바로잡기

▶ “공부할 때는 무조건 앉아있어야 한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0분 공부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며, 이때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각종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가 우선이며, 영양제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A, D, E, K)의 경우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카페인이 무조건 나쁘다?”

많은 수험생들이 집중력 향상을 위해 커피를 마시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실제로 인지 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하루 1잔 정도로만 제한하고, 특히 점심 이후에는 섭취를 피해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스트레스 관리와 멘탈 케어

수험생활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매일 10분간의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부와 완전히 분리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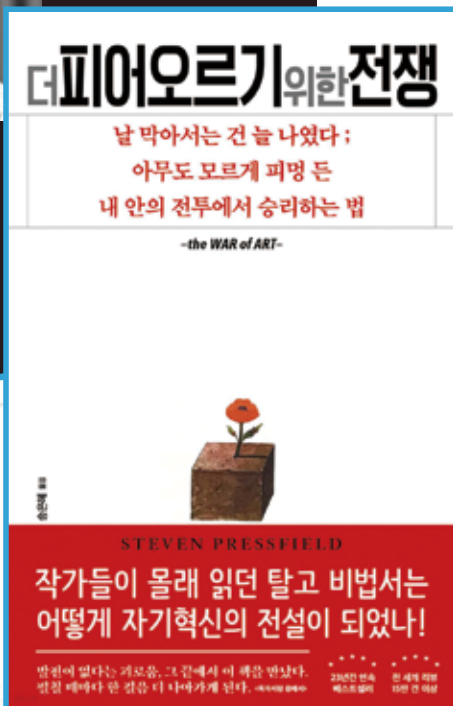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험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건강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수험생활을 마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의 노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일형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 법무법인 그루제일
(전) 주식회사 셀트리온

더 피어오르기 위한 시절을 보내는 방법



“저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힘이다. (...) 저항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왜곡된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지닌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더 피어오르기 위한 전쟁>(송은혜 역, 인간희극)에서 시종일관 ‘저항’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저항’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영화 <300>의 원작인 <불의 문>을 쓴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서는 스스로의 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저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창작하는 사람, 자기의 일을 하려는 사람,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은 항상 ‘저항’과 전쟁을 치룬다고 한다. 우리 안에는 ‘저항’이라는 악마가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운동을 해야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나 번번이 우리 안의 ‘저항’은 이를 무너뜨린다. 귀찮게 운동을 갈 바에야 방에서 그냥 넷플릭스나 봐. 괜히 운동 가면 더 피곤해지기만 해서 하루를 망칠 거야. 내일이 운동하기엔 더 적절한 날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안의 ‘저항’은 우리에게 속삭이며 오늘 운동을 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해야하는 모든 중요한 일에는 이처럼 저항이 따라붙는다. 가히 악마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정지우 변호사, 작가

20년간 글을 써온 작가이자 저작권 변호사.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ai, 글쓰기, 저작권>, <사람을 남기는 사람>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등 20여권의 책을 썼다. 사단법인 오늘은 이사장이자 LCL법문화연구소 대표로 있다.

“저항은 ‘에일리언’, ‘터미네이터’, 혹은 ‘조스’와 같다. 저항은 논리로 결코 설득할 수 없다. 오직 힘만을 이해할 뿐이다. 저항은 파괴만을 위하여 설계된 엔진이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저항을 설득이나 논리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관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우리 안에서는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 온갖 ‘합리화’ 작업이 일어난다. 수험생활에만 하더라도,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미루고 내일 해도 되는 이유는 매번 100개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냥’ 하는 것이었다. 할 필요 없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그냥 편하게 놀아, 같은 말들이 귀에 속삭일 때마다,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설득하기 보다는 언제나 ‘그냥 하는 게’ 더 중요했다.

나는 지난 20여년간 거의 매일 글을 써왔다. 수험생활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자정쯤 30분 정도 글을 쓰는 게 매일의 루틴이었다. 때로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수험공부인데, 글 써서 뭐하냐는 내면의 ‘저항’이 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수험도 수험이지만, 글쓰기도 하고 싶었고 해야한다고 느끼기도 했다. 작가로 사는 건 내 평생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수험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글쓰는 정체성을 잃고 싶진 않았다. 결국 나는 ‘저항’과 싸우며 공부하면서도 글쓰는 삶을 살아냈다.

“작가가 저항을 이겨내고 실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갑자기 기분이 들쭉날쭉해지고, 시무룩하거나, 심지어 아프기까지 한다.”

재밌게도 책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일에 제대로 몰두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진다고 한다. 너 왜 그래, 너 변했어, 예전처럼 게으르거나 한심하게 살아, 네가 할 일을 미뤄야지 뭐 하는 거야, 같은 말을 하며 안절부절못한다는 것이다. 수험생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적당히 공부를 미루고 싶은데, 스터디원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괜히 그가 미워진다. 그로 인해 초조해지고 그를 공부 못하게 막고 싶다. 내 안에 ‘저항’이라는 악마가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려는 셈이다.

때로는 단순히 ‘내면의 목소리’나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저항’이 되어 우리를 막아선다고 느낄 때도 있다. 스마트폰 속의 쇼츠와 릴스, SNS 알림, 새로 업데이트 된 웹툰, 심지어 서로 싸우느라 으르렁대는 정치인과 연애와 이별 같은 가십거리로 장식하는 연예인 등이 모두 합심하여 우리가 삶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을 방해하기 위해 작정한 것만 같다. 이들을 우리 삶의 명확한 ‘적’이자 ‘악마’인 ‘저항’으로 상정하면, 의외로 삶은 심플해진다. 우리에게 진짜 해야할 일이 있고, 그저 하면 된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조종해 온 광고, 영화, 비디오 게임, 잡지, TV,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의 각본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불안을 진짜로 치유해줄 수 있는 것은 가처분 소득으로 구입한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짜 해답은 단 하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뿐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흔히 ‘정신 바짝 차리자’라는 말을 하듯, 우리는 깨어 있어도 정신을 차리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약간 비몽사몽인 채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가 흘러간다. 그저 관성대로 학교를 오가거나 출퇴근을 하며,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보낸다. 불과 한 달 전에 무엇을 했나 떠올려 보면 잘 기억나지 않기도 한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스크린타임은 5, 6시간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1년이면, 약 2000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을 보는 셈이지만, 그중에서 과연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스럽다. 우리가 중독적으로 콘텐츠 소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반쯤 ‘잠들어’ 있는 셈이다. 내게 진짜 중요한 것, 내게 정말 가치있는 것, 내가 지금 바로 해야할 것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마추어는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비로소 일을 시작한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프로는 안다.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전례없는 ‘저항들’을 피워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움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아무 두려움 없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상태야말로 가장 ‘잘못된 곳’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두렵고 어렵다면, 우리는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저항이 많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저항은 이겨내고 넘어서기 위해 존재한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모든 사람은 매일 저항과 싸운다. 그러니 만약 오늘도 저항을 느낀다면, 응당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믿어봐도 좋을 듯하다.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조만호 변호사는 다소니 작가와
협업하여 인스타그램에 '피고미'
인스타 톨을 운영 중이다.
@urmasterpieceofgod



제2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개최



제2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8월 18일(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홍대식 이사장, 이탁건 사무국장,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공모전은 ▲로스쿨 입학 ▲로스쿨 생활 ▲변호사시험 합격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총 19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전북대 로스쿨 이나현 원우의 '37세, 파산법인 대표의 로스쿨 생활기'가 차지했으며, 정영선 원장이 직접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사법연수원 간담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8월 26일(화)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법연수원과 함께 재판실무과목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판실무과목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과 실무수습 배치 인원 확대 등 상호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사에는 법전원 측에서 홍대식 이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원장·부원장이 참석했으며, 사법연수원에서는 이준명 수석교수와 10명의 교수가 함께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73차 이사회 및 제81차 총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제73차 이사회 및 제81차 총회를 열었다. 25인의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법학 실무위원회 및 변호사자문위원회 구성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시행 개선 ▲변호사시험 표준판례 업데이트 추진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신임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임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1일(월) 양천수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신임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27·202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를 총괄하고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양 원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괴테대학교(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기초법학 분야의 권위자다. 풍부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학적성시험의 발전과 제도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지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원장을 부이사장으로 지명했다. 협의회 정관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르면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가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선희 신임 부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전기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신임 원장 취임



고려대학교 로스쿨은 7월 1일(화) 김상중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쾰른대학교(Universität zu Köln)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민사법학회와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법전원협의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월 11일(목)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무부 측에서는 정 장관을 비롯해 조아라 법무심의관, 김태훈 대변인, 이동근 법조인력과장이 배석했다. 협의회에서는 홍대식 이사장, 박정훈 부이사장, 이선희 부이사장, 이탁건 사무국장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 방향,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한 주요 사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 경연 분야 : 민사재판, 형사재판(2개 분야 동시 참가 불가)
- 참가 자격 : 공고일 기준 로스쿨 재학생 3인으로 팀을 구성(휴학생 제외)
- 접수 기간 : 2025. 10. 20.(월) 10:00 ~ 10. 29.(수) 17:00
- 경연 일정 : - 예선(서면심사)문제: 2025. 10. 31.(금)
- 예선 제출: 2025. 11. 7.(금)
- 본선 변론기일: 2026. 1. 20.(화) 오전
- 결선 변론기일: 2026. 1. 20.(화) 오후
- 문의 : 대회집행위원회(사법연수원 연수과 031-920-3459)



가인 김병로 [사진=대회집행위원회]

제5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 대회 일시 : 2026. 1. 16.(금) 10:00~17:30
- 대회 장소 :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서울 용산구)
- 참가 대상 : 전국 로스쿨생(본선 진출 10개팀)
- 참가 방법 : 추첨을 통해 군검사 5팀, 변호인 5팀 편성
- 접수 기간 : 2025. 10. 1.(수) ~ 10. 31.(금)
- 문제 공고 : 2025. 11. 3.(월) ~ 11. 19.(수)
- 문의 : 국방부 군사법원(02-748-1421)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 일시 : 2025. 11. 11.(화) 14:00~18: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박균택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내용 : 법조인 양성 과정의 기회균등 제고 방안, 우수한 법조인 양성 및 졸업자의 전문분야,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의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교육과정 개선
- 문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s://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s://lawschool.wku.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